

본지 868호
‘2019 대학별 수시 전형 분석 ③ 연세대’ 기사 중

종합 전형을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두 트랙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1단계에서 교과를 정량평가로 반영하는 면접형과 서류 100%
인 활동 우수형은 지원자의 구성이 다르다. 자연 계열은 큰 차이가 있지만 인문·사회 계열은 일반고 지원자가 면접형에서 90%, 활동 우수형에서 70%를 차지한다. 면접형은 교과 성적을 갖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이다. 다만 성적만 좋고 학교 활동에 별 의지가 없는 학생이 합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교과 영역도 1단계 평가에 반영한다.



한 대학 두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어떻게 다른가요?

한 대학 안에 서로 다른 유형의 종합 전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연세대의 종합 전형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이 그 예죠. 중앙대도 종합 전형에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강대 종합 전형도 자기 주도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고려대는 세가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추천 I, 학교 추천 II, 일반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추천 전형이 있는 건국대·경희대·동국대·서울대 등도 종합 전형을 두 가지로 운영하는 셈이죠.

한 대학 두 가지 종합 전형 비교

대학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중앙대	
전형명	학교 추천 I	학교 추천 II	일반형	자기 주도형	일반형	면접형	활동 우수형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최저 기준	○	○	○	×	○	×	○	×	×
면접 시기	수능 전	수능 후	수능 후	—	—	수능 전	수능 후	수능 후	수능 전
평가 방법	1단계: 학생부 교과 100 2단계: 면접 100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50 +면접 50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70 +면접 30	서류평가 100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수능 이후 제출	서류평가 100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수능 이후 제출	1단계: 교과 50 +비교과 50 2단계: 면접 60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

두 가지 종합 전형에서 비교해야 할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면접이 수능 전인지 수능 후인지, 평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등입니다. 그에 따라 지원자의 구성, 경쟁률,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종합 전형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을 비교해봅시다. 경쟁률은 수능 전 면접인 면접형이 수능 후 면접인 활동 우수형보다 낮습니다. 물론 수능 후 면접이 있는 전형은 결시율이 수능 전 면접 있는 전형보다 높으나 실질 경쟁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면접형은 지원자와 합격자의 내신 등급 평균이 활동 우수형보다 좀 더 높은 편입니다. 1단계를 교과 50%와 비교과 50%로 선별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또 중앙대 탐구형 인재는 다빈치형 인재와 평가 방법은 같지만, 세부 평가 요소에 차이가 있어 이른바 ‘덕후’들이 지원하는 경향 때문에 전체 내신 등급 평균은 더 낮은 편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전형 요소와 입시 결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각 전형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손희승 리포터 sonhi970@hanmail.net



〈미즈내일〉의 입시 분석 기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코너를 주목해주세요. 지면의 한계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난해한 정보를 골라 다시 한 번 꼼꼼히 짚어봅니다. 기사를 읽다가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메일(asjung@hanmail.net)로 요청해주세요. 친절한 A/S NEWS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